

# “생활 속 가르침 실천이 나와 가정 바꾸는 힘”

##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1971년 경기도 안양에 '대한불교회관'이 설립됐다. 전통 사찰이 아닌 도심에서 현대식 법회를 하는 것은 당시 한국불교 현실로서는 새바람이었다. 이후 이 곳은 '한마음선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안양 본원외에 국내에 15개 지원을 열어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해외포교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현재까지 10개의 해외지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특히 선원장 대행 스님과 주지 혜원 스님은 2002년 비구니회관 건립당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불교계의 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조계종 포교원에 포교기금 3억원을 쾌척하는 등 비구니 스님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5월 9일 종교와젠더연구소 옥복연 소장과 주지 혜원 스님이 만나 대담을 진행했다.

정리=이은아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옥복연 소장:** 한마음선원은 1982년 조계종에 등록한 후, 포교와 신행부분에 있어 범종단적으로 모범이 될 정도로 급격한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주지스님께서는 한마음선원과 출가 전부터 깊은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행 스님과 인연에 대해 말씀 해주시지요.

**혜원 스님:** 1970년 제 나이 서른 셋 일때, 저는 아주 나약한 속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대행 스님을 찾아뵙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인자한 손길이 제게도 인연이 닿았습니다. 스님은 한없이 눈물만 흘리는 제가 불쌍해보였는지 선원에 와서 행자가 되겠다고 물어 본 것입니다. 저로서는 그 말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당시 살려고 해도 살 용기가 없었고, 막상 죽으려 해도 죽을 용기도 없었던 소심한 겁쟁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저를 행자로 받아주신다는데 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승려로서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 1970년 대행 스님과 첫 만남 후 출가 대행 스님, 비구니 스님 외아래 “묵묵히 그냥 나아가라” 강조 생활 속 참선수행 가르쳐 신도수 증가 해외 신도들 요청으로 지원 개원

스님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선원을 다녀간 사람들이 여기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시인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사찰에서 명상이니 마음 단련 수행 프로그램이니 그런 걸 많이 시행하고 있고 마음공부라든가 자기 근본을 찾는 말들을 흔하게도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저 절하고 염불하고 복을 비는 기도밖에는 몰랐던 분위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왜 저리 스님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조계종 차원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은사 스님은 누구 하나 갖하는 법도 없이 "당신네들은 당신네들 좋을 대로 생각하고 욕하시오. 우리는 바른 부처님 법을 신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가겠소." 하는 생각으로 절을 이끌었습니다.

아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찰에서 다른 곳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니가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비구니스님들의 외양도 자주 있었는데 그래도 스님께서는 아무 말 안하셨죠. 묵묵히 그냥 가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우리는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은사 스님의 말씀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내면의 뜻을 알아보고자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이끄는 공부줄이었지요.

**옥복연 소장:** 한마음선원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했는데도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혜원 스님:** 생활 속 참선수행을 가르치는 것이 그 비결 같습니다. 선원에서 가르치는 마음공부가 불자들에게 어찌 보면 생소한 방식이거든요. 근본 핵심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참선을 한다는가 기복적인 대상으로서 부처님께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기 근본 불성 자리인 주인공(主人)을 그대로 믿고 맡기고 거기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관법(觀法)을 가르쳐드린 겁니다.

"생활 속에서 참선을 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막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도 자기 근본 마음 자리에 탁 맡기세요. 그렇게 하면 생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자기의 근본에 부합하

게 되는 수행이 되니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치지요.

처음부터 신도들이 '말진다, 참나를 믿는다' 이런 걸 잘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저희는 신도님들이 스스로 내 속에서 알아지게 될 때까지 한결같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은사 스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매일매일 선실에 나가셔서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에게서부터 고민을 듣고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하나같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스님들 또한 그렇게 가르쳐 드리고요. 선원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신도들이 막연하게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믿고 갈 수 있도록 은사 스님이하 선원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드린 덕분이었습니다.

**옥복연 소장:** 최근 해외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마음선원은 10여 개 나라에서 해외지원을 운영하시면서 영문으로 법문이나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일찌감치 해외포교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외포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혜원 스님:** 지난 1987년 미국 모건힐에 첫 분원을 개설한 이후 알래스카, 뉴욕, LA등 4개의 분원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은사 스님은 알래스카니 부에노스 아이레스니 그런 멀고도 척박한 지역까지 직접 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불법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외포교를 하는 데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우려곡절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뤄진 게 아니에요.

당시 저는 영어도 한마디 할 줄 모르면서 고무신 한 켤레, 사람들에게 나눠줄 마른 인삼이 들어있는 주머니 하나만 넣고 미국에 갈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모건힐에 분원을 개원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영어교사를 하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신도가 있었는데 그분께 일을 맡겼습니다. 그 분이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 한마디를 잘못하는 바람에 사찰을 모건힐 시에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땅을 사서 농사도 짓고 사찰도 세웠는데 모든 걸 다 빼앗긴 거죠. 그때 고급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애만 태우다 사찰을 고스란히 남기게 됐죠.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워요. 제대로 영어를 하는 사람 하나 없이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포교를 위해 해외로 다녔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신도 분들이 먼저 나서서 "여기에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니 불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지 우리가 무작정 땅을 사고 재정을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지원을 세우기 시작하다보니가 뉴욕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전 세계까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국에 선원 신도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더러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의 호텔방을 하나 빌려 법회를 했는데 처음에 50명 이상이 모였더라고요. 법회를 다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 모임의 회장이 저를 불러더니 "스님 저희를 놔두고 어떻게 가십니까. 저희에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이라도 내려주시고 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하나 마련해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달 뒤 태국 한인불자들이 리 돈을 모아서 2층짜리 집을 마련했더라고요. 은사 스님을 모시고 가서 개원식과 법회를 열게 됐죠. 태국지원은 1년에 1~2회씩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수익금은 모두 태국 지역 고아원에 기부하죠. 그렇게 해주니 태국에서는 저희에게 호의적이죠. 지금도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민자들 중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비구니 스님이 법회를 한다고 깔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구니가 무슨 법회를 하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구요. 그럴 때 은사 스님은 "어디 한번 법회할 때 가서 보자" 하시고는 법회에서 대중들을 압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도 나중에는 스스로 찾아오게 되더군요. '제가 아상(我相)이 높았습니다' 이러면서요.

**옥복연 소장:** 법회 초기에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감히 법상에 오르냐"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혜원 스님:** 그럴 때 은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법상이라고 뭐가 다르냐.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잘 보라고 높여서 앉은 건데 뭐 별 다른 게 있냐" 하구요. 또 "비구니가 무슨 법회를 하나"고 빈정떨 때는 "비구니 비구는 언제 적 비구니 비구였나. 수없는 나날을 거치며 비구 비구니 여자 남자가 되는데 그런 거 다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마디 하시면서 그다음에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옥복연 소장:** 작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11 한마음음악제'를 성황리에 치렀는데, 많은 신도들이 직접 참여해 진행된 그 규모에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불교 신자의 다수가 여성이다보니 사찰의 행사에는 여성신도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한마음선원은 남성신도가 적극적으로 사찰 행사에 동참하고 가족단위의 신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 “비구니가 무슨 법회냐”는 비아냥에 “비구 비구니 따지다 아무것도 못해” 후학과 한국불교를 위해 공부하면 비구니 위한 제도 자연스럽게 생길 것 나를 100%믿고 나아가면 문제 근원 해결

**혜원 스님:** 거사, 청년, 학생, 어린이 신도들이 저희 선원에는 아주 주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마음공부를 하면서 잠깐 나가고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원만하게 잘 풀리더라고요. 마음공부를 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니 일도 원만하게 잘 풀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니 부처님오신날 연 등행렬에도 열심히 참가하려 하고 봉사활동 이런 것도 부지런히 출선수범해서들 다 하시죠.

한마음선원은 참 유난스럽다는 생각이 될 정도로 신도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십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는데 어떻게 안했었어요?"라면서 서로 힘든 일도 나서서 하려고 합니다.

또 부인 자식 모두 선원에 나와서 재밌게 공부하면서 부인은 가정에 충실하고 자식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니 거사님들이 "나도 한번 가보자"는 호기심에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선원에 다니게 되는 겁니다.

**옥복연 소장:** 사찰들의 속세가 아동청소년 포교인데 한마음선원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혜원 스님:** 가정의 시작은 부모이지만 아이들로 인해 한 가정이 생성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는 이미 스스로를 책임지는 어른이지만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커나가는 존재이니가 부모가 제대로 된 생각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면 그 아이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아이들은 그에 따라 혜택을 볼 수도 있고,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존재이지요. 또 시대적으로도 고가의 사교육이니 뭐니 학교폭력이니 뭐니 내 아이를 세상에 내놓기 점점 무서운 시대가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 선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줄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혼자 잘났다고 잘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아이의 친구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 아이도 결코 혼자 행복할 수 없는 공생의 도리를 부모와 아이들



혜원 스님은 ... 1939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났다. 1981년에 입산해 1982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198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92년 한마음선원 주지로 취임했으며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전국 비구니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혜원 스님은 생활 속에서 수행해가는 불자들을 위한 수행 활동과 어린이 학생 청년 불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포교에 힘쓰고 있으며 국외 지원 설립, 군법당 포교 등의 불법 홍보와 실천적인 수행을 선도해 오고 있다.

이 함께 자각하게끔 합니다. 모두가 더불어 가야한다는 걸 알게 하고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고 자기 근본을 믿는 힘에 의지하여 스스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평이를 쥐어주는 것이라고 할까요?

하얀간 학생이나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이며 한국 불교의 미래이니만큼 결코 소홀할 수 없다는 데 모두들 공감하고 그러다보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애쓰다보니 불교에 대해서도 할머니들이나 다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 한몫을 하게 되더군요.

**옥복연 소장:** 비구니승가가 규모도, 능력으로도 비구승가와 유사하지만, 최근 비구승가는 비구승가에 비해 고령화가 눈에 띄고 건강문제 등 비구승가만의 특수한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구승가의 문제들을 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비구승가가 적극적으로 종단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중현중범이나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도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비구승가의 복지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혜원 스님:** 자기 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서 각 소임에서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비구니스님들의 모습은 한국 불교를 이끄는 대표적인 수행자 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회 복지 부분에서도 크게 포교의 영역을 넓혀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막상 당면해있는 승가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의견을 내거나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갈수록 출가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법당에 수행해가는 이들을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때에 종단 차원의 기틀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면 10년 후 한국 불교의 기세는 크게 수그러들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중현 중범의 밑 갖춰진 부분들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비구니 스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수행자니까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겠다는 공부인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면 이제 나보다 후학을 위한 마음에서, 좀 더 크게는 한국 불교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번 더 의지를 모으고 굳건히 다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그 다음 일로서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옥복연 소장:**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합니다. 현재 많은 대한민국의 20~30대의 젊은이들은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 값 등 경제·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돌볼 여유도 없다는 이유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삼포세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혜의 말씀을 해주세요.

**혜원 스님:** 일단 결혼은 해야 식구가 늘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결혼은 하되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을 사세요. "○○네 엄마가 어디 학원 보낸다더라" 그런 마음에서 자기 자식의 소절이나 취향은 아랑곳없이 비싸고 좋다는 학원 못 보내서 안달하지 마시구요, 자식들에게 맞는 적성을 개발하도록 열심히 마음을 내주세요.

일체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하도 많으니 이 부처 찾다 저 부처 찾다 할 수 없으니 그것을 모두 통틀어서 한마음 주인공이라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속에 천체가 다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다 모든 것을 믿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주인공, 니가 알아서 해. 내 이 몸뚱이가 사는 게 아니잖아? 너라는 주인이 있어 사는 거지. 이 육신은 마음의 시지일 뿐이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힘들어만 할 뿐이야. 그러니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게끔 내가 이끌어!" 이렇게 맡겨놓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참 감사해." 이렇게 하세요. 나를 100%믿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간이 좀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간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삭이듯이 그렇게 주인공에게 맡기고 가세요.